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6-20호 | 2026년 5월 27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이재영 | idp.theminjoo.kr

##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현장체험학습 개편

### - 정부·교육청·지자체·전문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체험학습 지원체계 구축 방안

이경아 연구위원(교육정책학 박사)

#### 《 요약 》

- 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중단 위기는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운영·안전·법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음
    - 속초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체험학습의 축소·중단이 확산되고 있으며, 교사들은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과 행정업무 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현재 교사가 프로그램 기획, 계약업무, 안전관리, 민원 대응, 사고 대응까지 사실상 체험학습 운영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정부 인증제-지자체 연계-전문기관 운영' 중심 구조로 운영하고 있음
    - 영국은 정부 인증제도와 전문기관을 통해 숙박·교통·보험·안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지역관광·문화체험과 연계해 지자체·관광기관·전문업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음
    - 공통적으로 교사는 교육활동과 학생인솔에 집중하고, 운영·안전·응급대응 등은 전문기관과 공공시스템이 분담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도 '교사는 인솔 중심, 전문기관은 운영 중심, 정부는 인증체계 운영'으로 교사와 학교의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을 덜어내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단위 '학교 체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인증된 체험학습 프로그램, 안전계획, 학부모 대상 위험 고지 및 동의, 보험·응급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숙박업소·이동업체·체험기관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 정책과 연계한 지역 기반 체험학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교사의 법적 책임은 고의·중대 과실 등으로 한정해 교육청 법률 지원 전담 체계와 소송 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청 '소송전담대리제'를 도입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학교안전공제·민원조정 체계도 함께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장체험학습 안전체계 개편은 교사보호 정책이면서 학생의 학습권 회복 정책이며, 동시에 지역관광 활성화와 연계한 역할 분담형 운영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정책 개편의 핵심은 교사와 학교의 책임 자체를 덜어내는 '운영 구조의 재설계'이며, 정부·교육청·지자체·전문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활동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 ▶ 키워드 : 학교 현장체험학습, 학교 체험학습 통합플랫폼, 체험학습 정부인증제, 지역관광 활성화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1. 논의 배경

### ○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

-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초등학생 사망사고 이후 인솔교사의 형사책임 문제가 부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비숙박형이나 교내 활동으로 대체하거나,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음
- 2026년 전교조가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운 학교에서 숙박형 체험학습이 비숙박형·교내 활동으로 대체되거나 사실상 중단되는 등 체험학습의 위축 흐름이 확인됨
- \*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 가능성에 불안을 느낀다’ 89.6%, ‘체험학습 준비 과정의 행정업무가 과중하다’ 84%로 프로그램 기획·계약·안전계획·학부모 동의·민원 대응 등 운영 부담이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줌

### ○ 체험학습 위축의 핵심 원인은 단순 안전 우려가 아니라 ‘책임 구조의 불균형’에 있음

-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재판에서, 담임교사는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담임교사의 상고 취하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됨
- 해당 사건은 체험학습 중 학생 대열 이탈 가능성, 인솔교사의 주의의무 범위,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함
-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충분한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를 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었고, 이는 체험학습 자체를 회피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됨

### ○ 현재 학교 체험학습은 사실상 교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지원센터」가 제시한 일반적 운영 절차를 보면, 학교는 계획수립, 사전답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계획 안내 및 계약수납, 안전교육, 현장 안전지도, 경비 정산까지 단계별 절차를 수행해야 함
- 특히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사전답사, 사전답사 결과보고서 내부 결재, 업체 위탁 시 계약 및 지출 품의, 출발 전 운전자 교육, 차량안전점검표 작성,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이 학교 업무로 제시되어 있음
- 숙박형 교육여행의 경우 24시간 사제동행을 전제로 야간 생활지도 근무조를 편성하도록 하고, 명예교사나 안전요원 등 보조 인력만으로 운영될 경우 사고 발생 시 인솔·지도교원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음
- 또한 숙박시설 화재 안전점검은 행사 실시 3주 전 관할 소방서에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수련활동·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으로 안내됨
- 이는 학교와 교사가 교육활동뿐 아니라 계약·안전점검·숙박·교통·야간지도·보험·정산까지 복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 최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이 대통령은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수학여행 위축 문제를 지적하고, 체험학습도 교육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전요원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함
  -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문제의 핵심이 안전요원 부족만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반발함
  - 이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교사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 세상에 ‘네가 희생하라’고 하면 안 된다”, “안전관리 책임을 왜 교사에게 떠넘기느냐”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논의의 초점이 체험학습 유지 여부에서 책임 구조 재설계로 이동하고 있음
- 체험학습의 위기는 단순 안전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운영·안전·법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구조적 문제로 볼 필요가 있음
  -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운영·안전·계약·책임의 역할 분담을 재설계하는 것임
  - 체험학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활동과 학생 인솔에 집중하고, 숙박·이동·체험 프로그램·보험·응급대응 등 운영·안전 영역은 인증된 전문기관과 지자체 등이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표 1> 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 구조**

단계	담당 주체	현장 부담
프로그램 기획	교사	교육·행정 이중 부담
숙소·식당 선정	교사	안전 검증 부담
계약·행정 처리	학교·교사	행정 업무 증가
이동 안전관리	교사	사고 책임 우려
학생 생활지도	교사	민원·분쟁 위험
사고 대응	교사	민·형사상 책임 집중

## 2. 해외 사례

### (1) 영국: 국가 인증과 전문기관 중심 체험학습 운영 모델

- 영국은 체험학습을 ‘학교 밖 학습(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이라는 공공 교육 활동으로 인식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 체계를 달리함
  - 영국 교육부 지침은 학교 밖 학습을 크게 ▲일상적 방문과 ▲별도의 위험평가·추가 계획이 필요한 방문으로 구분함
  - 일상적 방문은 학교 정책과 절차 안에서 다룰 수 있지만, 이동 거리·활동 유형·장소·전문적 지원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위험평가와 계획, 학교장 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 운영함
  - 이는 체험학습을 단순 행사가 아니라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 체계를 달리하는 교육활동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영국은 LOTC Quality Badge 제도로 학교의 안전검증 부담을 줄이고 있음

- LOTC Quality Badge(교실 밖 체험학습 품질인증 배지)<sup>1)</sup>는 학교 밖 학습 제공기관의 위험관리 품질과 교육 제공 수준을 함께 평가하는 국가적 인증제도임
- ‘교실 밖 학습위원회(LOtC, Council for 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sup>2)</sup>를 통해 박물관, 농장, 동물원, 야외활동센터, 문화탐방, 해외탐방 등 다양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함
- LOTC의 인증기관을 선택하면 학교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문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으며, 많은 학교와 교사의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영국 모델의 핵심은 교사가 모든 시설과 기관을 처음부터 검증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 인증체계를 통해 학교의 검증 부담을 줄이는 구조임

○ 교육여행 전문업체의 안전·품질을 관리하는 체계인 School Travel Forum

- School Travel Forum(STF)은 2002년에 설립된 비영리 회원 조직으로, 교육여행 분야에서 LOTC Quality Badge 수여 기관임
- STF 회원사는 매년 전문가의 감사를 받아 안전관리 시스템, 재정 보호 요건, 공정거래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받음
- STF는 교육여행 업체가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기준과 실행 기준을 검증하며, 학교가 교육 여행 업체를 선택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
- STF를 통해 교사는 체험학습에서 교육목표 설정과 학생 생활지도·인솔을 담당하고, 숙박·교통·프로그램 운영·보험·비상대응은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해짐

○ 영국의 학부모 체험학습 동의 체계는 단순 면책이 아니라 위험 고지와 참여 결정 중심임

-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유아 단계 아동은 항상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유아 이후 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과정상 방문은 서면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높은 수준의 위험평가가 필요한 활동이나 정규 학교시간 외 활동에는 일반적으로 서면동의가 필요함
- 즉 영국의 동의 체계는 학교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받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활동 성격·위험 수준·운영 조건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임
- 이 과정에서 학생 질병, 복용약, 알레르기, 응급연락망, 특별 지원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기관·학부모가 위험과 역할을 공동 확인하는 구조로 작동함

1) 현장체험학습 외부 제공기관 품질·안전 인증제로 해당 업체가 안전하다는 표시임. 학교가 체험학습을 운영할 때 교사가 모든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국가 또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외부 제공기관을 사전에 검증하고, 학교는 그 인증을 근거로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2) 영국에서 전국적으로 교실 밖 학습을 장려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맡은 독립 비영리단체

## (2) 일본: 지역관광과 결합한 교육여행 산업 모델

### ○ 일본은 체험학습을 ‘교육여행’으로 제도화하고 적극적으로 산업화함

- JNTO(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sup>3)</sup>)는 일본의 교육 여행을 ‘모든 학생에게 훌륭한 학습 기회’라고 소개하며, 역사·문화·자연·음식·스포츠·기술·위기관리·사회시스템·평화와 우정 등 주제별 교육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함
- 또한 학교교류, 여행계획, 추천 일정, 체험시설 정보, 지역기관 목록 등을 제공해 학교와 여행기획자가 교육여행을 어려움 없이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여행을 원하는 관광객·기획자를 위한 중앙 접수·문의 창구 역할도 수행함

### ○ 일본의 교육여행은 지역관광·지역경제와 결합해 있음

-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관광기구는 농촌 체험, 생태교육, 전통문화 체험, 평화교육, 지역산업 탐방 등 다양한 학교 대상 교육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함
- JNTO 교육여행 웹사이트(<https://education.jnto.go.jp>)에서는 다양한 교육여행 테마를 제시하고 있으며, 체험학습이 지역 콘텐츠와 결합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체험학습이 학생 교육뿐 아니라 지역관광·지역경제·생활인구 확대·지역 브랜드 형성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줌

### ○ 일본의 학부모 동의 체계도 정보 제공과 역할 공유 중심으로 운영됨

- 수학여행·체험학습 참가확인서에 일정표, 숙소 정보, 이동 동선, 비용, 보험, 응급 대응 기준, 학생 생활수칙, 건강관리 기준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며, 참가 여부, 학생의 건강상태, 보호자 확인 등의 회신 정보를 문서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일본은 국가 단일 면책동의서보다는 학교·교육위원회·여행업계의 지침과 학교별 안내자료를 통해, 학교·운영기관·보호자가 정보와 역할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3) 한국형 체험학습 운영체계 개편의 시사점

### ○ 해외 주요국은 오래전부터 체험학습을 개별 교사의 헌신과 책임감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인증·전문기관·지자체 연계 중심 구조로 운영하고 있음

- 영국은 LOTC 인증과 School Travel Forum을 통해 외부기관의 안전·품질 기준을 관리하고, 학교의 검증 부담을 줄이고 있음
- 일본은 교육여행을 지역관광·문화체험·학교교류와 결합하여 전문기관과 지역이 운영하는 구조로 발전시킴

3) 1964년에 설립된 일본의 공공 관광 전문기관으로, 방일 관광 촉진과 함께 학교·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JNTO의 JAPAN Educational Travel 사이트는 각종 교육여행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으며, 일본의 체험학습이 관광정책·지역 활성화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한국은 학교별 개별 기획·개별 계약·개별 안전검토 형태가 일반적임

- 현장체험학습 절차는 계획수립, 사전답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계약·수납, 안전교육, 현장 안전지도, 경비 정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절차 자체는 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법률·안전관리 부담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음
- 특히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24시간 사제동행, 야간 생활지도, 숙박시설 소방점검 요청, 여행자보험 가입, 학부모 동의율 기준 등 다층적 절차가 요구됨
- 따라서 개별 교사의 책임감만으로 체험학습을 유지하기보다, 정부·지자체·전문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전환의 핵심은 교사와 학교의 책임 자체를 덜어내는 ‘운영 구조의 재설계’임

- 교사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면책제도 보강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사고 발생 후 면책 여부를 다투는 구조보다, 사전에 인증된 숙박·이동·식사·체험기관을 활용하고, 표준 안전계획과 학부모 동의, 보험·응급대응 체계를 별도로 구축해 교사의 책임 자체를 덜어내는 운영 구조가 필요함
- 즉 체험학습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위험 업무가 아니라 공공 인증과 전문기관 운영에 기반한 교육활동으로 전환해야 함

<표 2> 국가별 체험학습 운영 구조 비교

구분	영국	일본	한국
운영 방식	전문기관 중심	교육여행 산업형	학교 개별 운영
안전관리	국가 인증제	여행사·지역체계	학교 자체 검토
교사 역할	교육·인솔	생활지도·인솔	기획~안전 전 과정
숙박·이동 운영	전문기관 담당	전문업체 담당	교사·학교 부담
학부모 동의	위험 고지·역할 공유	역할 공유	사실상 면책 논란
지역 연계	야외교육 중심	지역관광 연계	제한적
책임 구조	분산형	전문기관형	교사 집중형

3. 정책 제안

(1) 역할 분담형 체험학습 지원체계를 위한 ‘학교 체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 체험학습 운영 방식의 재구조화를 통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

- 현재 학교의 체험학습 준비는 교육활동 설계보다 운영·계약·안전관리 행정이 더 커지는 구조임
- 학교는 ‘교육목표 선택’을 하고, 전문기관은 ‘체험학습 운영 주체’가 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함
  - ▲교사는 교육과정 목표와 학생 특성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재구성함
  - ▲전문기관은 숙박·이동·체험활동·안전관리·보험·응급대응을 담당함
  - ▲교육청과 지자체는 프로그램 품질관리와 인증, 민원·사고 대응 지원을 담당함

○ 국가 단위 공공 플랫폼 구축 필요

- ‘학교 체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학교가 학년, 교과, 지역, 숙박 여부, 이동 거리, 예산, 안전등급, 교육과정 연계형 주제 등을 입력하면 인증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검색·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플랫폼은 단순 예약 사이트가 아니라,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인증기관, 안전계획, 학부모 동의, 보험, 응급대응, 계약서류를 통합 제공하는 공공 운영체계로 구축해야 함
- 학교급식이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영양기준과 학교 여건에 따라 식단을 구성·관리하고, 식재료는 공공조달·계약 체계를 통해 품질·위생 기준 아래 공급·관리되는 것처럼, 체험 학습도 교사가 교육과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구성하고, 숙박·이동·체험활동은 인증·계약 체계를 거친 전문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필요함

○ 기존 체험학습·진로체험 플랫폼의 연계·고도화 검토

- 현재 교육부의 진로체험망 ‘꿈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e 청소년’,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일부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시스템 등 관련 플랫폼이 존재함
- 그러나 이들 플랫폼은 진로체험, 청소년활동, 지역별 체험학습 지원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어 있고,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기존 플랫폼을 연계·고도화하여 학교 체험학습의 기획-인증-계약-운영-안전관리-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의 주요 기능(안)

- 교육과정 연계 검색: 역사, 과학, 생태전환, 진로, 민주시민교육, 지역산업, 문화예술 등 주제별 검색
- 인증 연계: 숙박업소, 식당, 이동업체, 체험기관, 교육여행 운영기관의 인증 여부 확인
- 표준 안전계획 자동 생성: 이동 동선, 비상연락망, 응급의료기관, 보험, 학생 행동수칙, 인솔계획 자동 출력, 사고 발생 시 교육청·지자체·운영기관·보험기관의 비상대응체계 연결 등
- 학부모 동의 시스템: 위험요소, 활동내용, 보험범위, 응급조치, 건강정보 확인을 포함한 표준 동의서 제공
- 계약·행정 자동화: 계약서, 가정통신문, 안전교육 자료, 정산자료, 만족도 조사 서식 제공

<표 3> 학교 체험학습 통합플랫폼 주요 기능(안)

기능	주요 내용
프로그램 검색	학년·교과·지역별 검색
인증 연계	숙박·식당·이동업체 인증
안전관리	표준 안전계획 자동 생성
행정지원	계약·동의서·가정통신문 자동화
보험지원	보험·응급대응 정보 제공
학부모 시스템	위험 고지·동의 연계

## (2) 정부·지자체 등 국가 인증 기반 체험학습 생태계 구축

###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 정책과 연계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관광 거점도시, 체류형 관광, 로컬관광, K-문화관광, 생태·역사관광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체험학습 플랫폼을 이들 사업과 연계하면 학교 체험학습은 지역관광 활성화의 안정적 수요 기반이 될 수 있음
- 특히 인구감소 지역, 농산어촌, 지방 소도시는 학생 체험학습을 통해 비수기 숙박·식음·체험 소비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체험학습 적합 인증체계 마련 및 인증기준 구체화, 체험학습 통합플랫폼 정보 연계

- 숙박업소, 음식점, 체험기관, 이동업체(버스), 교육여행 운영기관, 지역관광재단·문화재단 연계 프로그램, 농촌·해양·생태·역사·산업 체험시설 등에 체험학습 적합 정부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체험학습 통합플랫폼에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함
- ▲위생 기준(식품위생, 알레르기 대응, 단체급식 가능 여부), ▲소방·시설 안전(소방점검, 비상구, 야간 안전관리, 숙박 정원), ▲이동 안전(차량 등록, 운전자 관리, 음주확인 체계, 보험 가입), ▲프로그램 안전(활동별 위험평가, 전문강사 배치, 장비관리), ▲아동·청소년 보호(성범죄 경력 확인, 아동학대 예방, 생활지도 기준), ▲응급상황 대응(인근 병원, 응급 차량 접근성, 비상연락체계), ▲보험(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사고 발생 시 보상절차) 등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해당 정보는 체험학습 통합플랫폼에 연계함

## (3) 학부모 동의 및 책임 분담 체계 마련

### ○ 현장체험학습 위험고지·참여동의서를 통해 학부모에게 활동별 일반적 위험과 책임 한계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학교·운영기관·보호자의 역할 분담을 문서로 확인하도록 함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학부모 동의는 단순한 학교 책임면제 문서가 아니라, 체험학습 활동(프로그램·이동·숙박 등)에 대한 위험 인지·안전수칙 준수·보험범위 및 응급조치·보호자 협조 의무 등을 포함한 분쟁 예방을 위한 동의 절차로 설계함
- 체험학습 참여동의서의 핵심은 ▲‘일반적 위험’과 ‘책임 범위’에 대한 사전 고지, ▲ 위험과 책임에 대한 학부모의 자발적 동의, ▲미동의시 체험학습 참여 불가 및 대체 프로그램 안내 등임

### ○ 건강정보 확인체계도 표준화해야 함

- 학생 질병, 복용 약물, 알레르기, 장애·특수교육 지원 필요 여부, 응급연락망, 보호자 연락 불가 시 조치 기준 등에 대해서도 보호자는 정보를 공유하고 일정 부분 책임 분담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4) 교사 책임 범위 재정립 및 법률지원·공제·보험 체계 강화

##### ○ 교사의 책임 범위는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명확화해야 함

- 교사의 책임은 고의, 중대한 과실, 명백한 안전지시 위반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시설 안전, 숙박 운영, 이동 안전, 식사 위생, 체험 프로그램 안전관리, 보험·응급대응은 운영기관과 전문업체 책임으로 분리해야 함

##### ○ 교육청 단위 법률지원과 공제보험 체계 재정비 필요

- 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경찰조사, 민사소송, 합의 요구, 민원 대응을 단독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 법률 지원 전담 체계와 소송 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청 소송 전담대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법률지원단, 사고조사 지원단, 학부모 민원 조정 절차를 구축하고, 기존 학교안전공제회 및 교원배상책임보험 등과 연계한 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법률지원, 민원 조정, 책임 판정이 분절되지 않도록 통합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함

#### (5) 지역사회 기관·청소년 활동단체 등의 지역자원 연계 체험학습 협력체계 구축

##### ○ 학교 체험학습을 지역사회 협력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

- 체험학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보유한 교육·문화·안전·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사회에는 청소년 활동단체, 문화시설, 사회복지기관, 환경교육단체, 마을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체험학습 자원이 존재함
- 그러나 이들 기관은 학교 체험학습과 개별적·비정형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 기준, 책임 구조, 프로그램 품질, 학생 보호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지역사회 기관이 학교 체험학습의 공식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교육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인증형 협력체계가 필요함

##### ○ 청소년 활동단체의 체험학습 협력기관 참여 확대

- 스카우트, 청소년적십자, 해양소년단 등 청소년 활동단체는 야외활동, 공동체 활동, 응급처치, 봉사활동, 리더십 교육 등에서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이들 단체는 학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야외 안전교육, 캠프형 체험활동, 생태·환경교육, 응급처치 교육, 공동체·리더십 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따라서 청소년활동단체를 학교 체험학습 통합플랫폼의 인증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만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함

##### ○ 지역사회 협력기관도 학교 체험학습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인증기관으로 관리할 필요

- 플랫폼에는 지역사회 협력기관의 기관 유형, 운영 프로그램, 안전 인증 여부, 보험 가입 현황, 지도인력 자격, 학생 보호 기준, 종교·정치 중립 준수 서약, 사고 이력 및 개선 조치, 이용 가능 학년, 비용, 학부모 안내 자료 등의 정보가 구축·연계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학교는 검증되지 않은 기관을 개별적으로 섭외하는 부담을 줄이고, 인증된 기관 중 교육목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음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2025).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자료.  
민주연구원(2026).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 정책브리핑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지원센터(2025).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  
초등교사노동조합(2026). 현장체험학습 운영 실태 및 교사 인식 조사.  
한국교육개발원(2025). 학교안전사고 통계로 살펴본 학교안전사고 현황, 교육정책포럼.

### <국외 문헌·기관 자료>

- UK Department for Education(2018). Health and safety on educational visits. 영국 교육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ealth-and-safety-on-educational-visits/health-and-safety-on-educational-visits>, 검색일: 2026.05.20.  
Council for 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2025). Why Schools Should Look for the LOTC Quality Badge When Planning Educational Visits. Council for 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  
<https://www.lotc.org.uk/why-schools-should-look-for-the-lotc-quality-badge-when-planning-educational-visits>, 검색일: 2026.05.20.  
Council for 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2025). 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 Quality Badge. Council for 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 <https://www.lotc.org.uk/lotc-quality-badge>, 검색일: 2026.05.20.  
School Travel Forum(2025). About STF. School Travel Forum.  
<https://www.schooltravelforum.com/about>, 검색일: 2026.05.20.  
School Travel Forum(2025). Safety Management Standards. School Travel Forum.  
<https://www.schooltravelforum.com/safety-management>, 검색일: 2026.05.20.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JNTO)(2025). JAPAN Educational Travel. 일본정부관광국(JNTO).  
<https://education.jnto.go.jp>, 검색일: 2026.05.20.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JNTO)(2025). Educational Travel Programs in Japan. 일본정부관광국(JNTO). <https://education.jnto.go.jp/en/school-in-japan>, 검색일: 2026.05.20.

### <기사 언론자료>

- 경향신문(2026.4.28). 이 대통령 “소풍·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면 안돼”.  
교육플러스(2025.11.12). 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고 2심 판결 ‘촉각’…교총, 14일 기자회견.  
교육플러스(2026.4.21). “사고나면 교사 책임”…형사처벌 불안에 현장체험학습 사라지는 학교.  
뉴스시스(2026.4.21.). 교사 90%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형사책임 질까봐 불안”  
동아일보(2026.4.28). 이 “소풍·수학여행도 교육”…체험학습 위축 문제 지적.  
동아일보(2026.5.20). 이 “수학여행 안전책임 왜 교사에 떠넘기나·지침 만들라”.  
머니투데이(2026.4.21). 체험학습 학생 사망→“교사 유죄” 그 후…수학여행 줄줄이 멈췄다.  
연합뉴스(2026.5.20). 이 대통령 “안전관리 책임 교사에 전가 안돼”.

### <참고 웹사이트>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지원센터. <https://gogo.sen.go.kr>, 검색일: 2026.05.20.  
학교안전공제중앙회. <https://www.ssif.or.kr>, 검색일: 2026.05.20.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검색일: 2026.05.20.  
UK Department for Education.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ducation>, 검색일: 2026.05.20.  
Council for 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 <https://www.lotc.org.uk>, 검색일: 2026.05.20.  
School Travel Forum. <https://www.schooltravelforum.com>, 검색일: 2026.05.20.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JNTO). <https://education.jnto.go.jp>, 검색일: 2026.05.20.